

제목 이 세상의 두 줄서

성경 마태. 18 : 23 - 35 20 : 1 - 6

죄를 속죄 받으면 장차 구원 받는다
 든지 상(賞)도 피안에서 받는다는 생각이
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1
 런 사고가 옳든 그르든간에 우리가 반성
 할 큰 문제가 있다. 1것은 바로 공로

No.

사 상(功勞思想)이다. 예수가 추점적으로 유
 대교를 공적한 것이 바로 이 공로사상
 이다.
 내가 이런일을 하면 1 공로를 하나
 님이 나에게 축복을 줄것이라는 생각에
 로 움직이면 이미 하나님은 전지 전능
 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할일만큼 내게
 상을 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진 부자유
 한 하나님으로 전락된다. 1령기 때문에
 하나님앞에 어떤 형태로나 공로를 주장

하곤 1 공로로써 어떤 상의 보장을
 받는 것으로 안 우리 사람들은 예수는 1
 도록 공적했다. 그 것이 바로 죄인 것이다.
 이것은 하나님과 이미 인격적인 관계
 는 아니곤 채무자(하나님께 빚졌다 는 생
 각)와의 관계로 생각된 것이다. 그런 한
 략 타님은 공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으
 며 따라서 내가 빛을 갚으면 하나님은
 나에게 죄를 추궁할 수 있고 한걸음
 나가 물은 일을 하면 상을 받는다곤

생각 한다.

No.

이러한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

대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한 것

이 막한 중의 비유다. 여기 나타난 왕

은 법에 따른 강경한 모구를 그 빛진

중에게 한다.

국가에는 권리와 의무의 질서가 있다.

내가 국법을 어기면 법에 의해서 처단

받는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무조건적의

용서와 사랑의 질서를 보여 준다. (왕이

언 제 받 게 되 지 모 르 는 그 사 람 을 내 어
 켜 다) 이 것 은 뱀 의 세 계 가 완 전 히 제 거
 된 질 서 이 다.
 또 도 원 비 위 에 서 는 맨 위 에 온 사 람
 과 먼 저 온 사 람 에 게 똑 같 은 모 금(價金)을
 주 니 까 몇 배 더 받 으 라 고 생 각 했 던 먼
 저 온 사 람 이 이 에 항 의 한 다. 주 인 은 대
 답 하 기 를 "나 는 너 와 의 관 계 에 서 정
 제 적 인 약 속 을 지 켜 고 (법 과 의 목 의 질
 서) 나 중 온 사 람 에 게 똑 같 이 주 는 것 은

나의 생각 // 이라고 말한 중요한 두가
 지 점을 발견한다. 나중 질서는 처음
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 아니라 때
 의 질서이다.
 우리는 법과 의무의 질서와 무조건
 용서하는 은혜의 질서 속에서 산다. 도덕
 이나 윤리 세계는 일반을 족 범어 지배
 하는 세계다. 기독교에서 말한 사랑, 은
 혜는 일반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와
 내가 마주 실현실에서 모든 것이 되는

질서다. 종이 자기에 게 빛진 동판과 마
 주 썼을 때 종은 이 두 가능성을 그를
 수 있었는 데 그는 첫 질서(법과 마꾸)에
 참여하곤 다음것은 묵실했다. 이소식이
 전해지자 주인이 종을 불러 그를 감옥
 에 넣었다. 그가 다시 감옥에 넣은 이
 부터는 처음 경우와 아주 다르다. 처음에
 는 범의 진서에서 잠아 왔으나 다음은
 은혜의 진서에서 자꾸 하곤도 빛을 켜
 면 꼭 같아야 된다는 진서안에 다른

형 제 를 대 했 으 나 제 스스로 결 정 한 것
 시 대 로 (제 가 선택 한) 감 옥 에 가 라는 것 이 다.
 크 리 스 찬 은 이 두 가 능 성 에 서 살 고
 있 다. 네 가 선택 하 테 따 라 서 네 운 명 이
 결 정 된 다. 은 혜 의 질 서 에 참 여 한 다 면 여
 기 에 는 법 의 것 서 가 작 용 되 지 않 는 다.
 모 든 결 정 은 전 적 으 로 이 개 민 에 게
 속 해 있 는 데 자 기 의 선택 에 따 라 서 자
 기 의 운 명 이 결 정 되 어 진 다 는 것 을 꼭
 의 해 야 한 다. 이 런 것 은 피 안 에 서 되 는 것

No. *P*

이 아 니 라 지 금 바 3 여 기 서 건 점 되

No.

어 지 는 것 이 다.